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왕국절 제8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5.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름다운 성전에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팎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는 모습과, 탐욕과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저희를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무더진 양심도 말갭게 씻어주십시오. 잡스러운 것들로 가려져 있던 귀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도 되찾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 올라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호10:12	인도자
♠ 교 독 문	12. 시편 32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임보람 선생 II. 조병무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213. 먹보다도 더 검은	다함께
성경봉독	마 16:21-27	인도자
	출 19:7-12	장혜숙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자기를 부인하라	김재흥 목사
	거룩함 앞에 설때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39.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다함께
헌금봉헌 연주: 이일주 청년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거룩함을 맛보며 사십시오. 늘 하나님의 산에 올라 주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깨달으십시오.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을 씻어내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당신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주십시오. 더러움을 부지런히 씻어 낼 수 있는 성실함도 허락해주십시오. 조금이나마 우리 작은 삶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내길 원합니다. 나아가 탐욕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34)	신명기 강해(18)
기도: 배삼순 권사(17)/안정숙 권사(24)	기도: 김준호 권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박효선 권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안태상 집사

10월	영접위원	구성실	고사일	하현철	박석희	이기분	최영선
	헌금위원	조병무	이호원	김근종	유영남	최숙화	안정숙

귀기울이는 사랑

내가 진행하는 수업중에 학생들에게 누가 자신의 말을 제일 잘 들어주는냐고 설문지를 돌린 일이 있는데, 대부분은 가족, 친구, 애인을 적었으나 꽤 많은 학생이 '나 자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나 아닌 남이 내 말을 온전하게 들어주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잘 듣는 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미움, 무관심,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고집, 교만, 우월감, 자만심, 집중력 부족, 산만함, 나만의 생각에 빠져들, 텔레비전 등을 적어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들어서 약속이 어긋나거나 예기치 않은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나도 한번은 어떤 분과 오후3시에 만날 약속을 하고 그분에게 집에서 대략 1시 30분에 나오시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1시 30분부터 약속 장소에서 기다려 서로 어긋난 적이 있습니다. 또 한번은 내가 부산에서 광주 가는 고속버스표 예매를 후배 수녀에게 부탁했는데, 그날에 가려고 보니 그 표는 광주가 아니라 서울로 가는 광주고속 회사의 표였습니다. 후에 심부름해준 이에게 물어보니 "수녀님은 주로 서울에 출장을 가니 메모를 보고도 얼른 입력이 안 돼 그만 서울로 가는 표를 산 거지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친지들을 방문하면 텔레비전을 보느라 손님의 존재를 잊거나 그의 말을 정성껏 귀담아듣지 않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을 반가워하며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켜놓은 텔레비전 연속극에 눈길과 마음을 더 주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라고 대답하는 걸 들으면 문득 외로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상대의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이란 진정 다시 오는 것일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아주 오래 전 일이지만 암으로 고생하던 어느 사제가 병상에서 나의 방문을 위해 약속을 했다가 바쁜 일을 핑계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던 중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여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으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는 지상에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늘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간절하고 애뜻하게 이어간다면 말도 더욱 가려서 하게 되고 듣는 자세 또한 좀더 진지하고 정성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선을 다른 곳에 두거나 집중하지 않는 태도, 계속 전화를 받거나 다른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말하는 사람을 서운하게 만들고 어서 자리를 떠야겠다는 강박관념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동안 이쪽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리는 이 앞에서는 당황하고 무안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 말을 아주 다르게 잘못 전해 듣고 와서 불같이 화를 내는 친지 때문에 깊이 절망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이럴 땐 중간 역할을 잘못된 사람도 원망스럽지만 내게 직접 알아보지도 않고 극단적인 말을 내뱉는 이가 더욱 야속하게 여겨집니다. 오랜 세월 고이 쌓아온 우정이 잘못 들은 말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려는 위기의 순간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들어주는 이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나의 말을 잘 들어준 이의 모습에 감동 받은 체험을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항상 잘 듣는 이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어떻게 도와면 좋을까요?’ 저의 사소한 문제들도 유심히 귀기울여 듣고 자신의 일처럼 염려하는 당신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해결의 길에선 아직 멀리 있어도 제 말을 잘 들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온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저를 들어주는 당신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중간에 끼여들고 싶을 적이 없지 않았을 텐데도 저의 말을 하나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당신의 인내에 감동하면서 저도 그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판단은 보류하고 먼저 들어주는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배웠습니다. 잘 듣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기다리고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 편견을 버린 자유임을 배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주제넘게 남을 가르치려고 한 저의 잘못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소리로서의 말뿐 아니라 저의 사소한 행동과 상황에도 민감하게 귀기울이며 제가 해야 할 바를 넉넉히 일러주는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잘 들어주는 이가 없어 외로운 이들에게 저도 당신처럼 정성스런 사랑의 벼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듯 선한 갈망을 갖게 해주신 당신에게 늘 새롭게 감사드립니다.

400년 전의 편지

1586년 6월 1일, 서른 한 살의 나이로 죽은 남편을 그리며 쓴 편지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중략)...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 안동대학 박물관 소재

정말 살갑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서로에게 진실하게 마음가져가며 살아갑시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노정숙 김정길 최숙화 이광용 형인순 이봉옥 최종원 윤수진 김윤수
박옥경 염혜영 신윤정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윤성종 김윤정 백묘현 정두리 최주환 문복순 황원순
황자순 이경남

감사헌금:

문금석 이한림 김명희 김용길 최영혜 안성호 김종훈 안경숙 김명순
박홍재 염혜영 김흥순

생일감사헌금:

박정오 정미경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정두리	노봉임
베들레헴	윤정덕	정경례	박홍엽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정진경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곽혜자	박경선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문금석	박애순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박홍재	김춘려
시온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최희정
에베소	이순정	한선희	한선희	장혜숙
빌립보	최종원	이형숙	이정은	이형숙
가버나움	구성실	안홍숙	박순희	구성실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유경순	박혜경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유혜경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최영혜
두란노	안종일	정현주	교회	교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 2·4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2. **담임목사** :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지난 14일(목)에 귀국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속장인도자회** : 속장, 인도자 및 도서관 봉사자 가을 야유회를 19일(화) 백양사로 갑니다. 아침 7시 20분에 출발합니다.
4. **원로나들이** : 원로나들이를 21일(목) 아침 9시에 떠납니다.
5. **신앙실천** : 햇살 좋은 가을 길을 걸으며 주님을 향한 사랑고백의 시 한편 지어 보십시오. 마음이 정화될 것입니다.

* 헌화 : 이정은 권사 (남편 추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